

#### (4) 충민사(忠愍祠)

조선 초 왜구의 격퇴에 큰 공이 있는 김빈길(金贇吉)과, 병자호란 때 명장으로써 낙안군수를 역임한 바 있는 임경업(林慶業)을 제향하는 사우로 1697년(숙종 23)에 건립되었다. 그후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1974년에 새로이 복설하면서 이축하였다. 현재 낙안면 교촌리에 있다.

임경업(1594~1646)의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 본관은 평택이며 충주 출신이다. 1618년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에 공을 세웠다. 그후 방담진침절제사를 거쳐 1626년 33세의 나이로 낙안군수에 임명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이때 낙안성을 신축 또는 증건하였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주민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그후로 변방의 여러 무관직을 역임하였고, 1636년의 병자호란 때 의주의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로를 차단하여 큰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 청에 항복 후에도 일관되게 반청친명의 자세를 유지하여 명을 치려고 하는 청나라의 몇 차례의 군사작전에 동원되면서 이를 명나라에 몰래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 일이 발각되어 청나라에 압송되던 중에 마침내 1643년 탈출에 성공하여 명나라로 망명하였고, 명군의 총병이 되어 청을 공격했으나 포로가 되어 조사를 받다가 장살당하였다. 충민이라는 시호를 받아 사우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김빈길은 낙안 출신으로 호는 죽강(竹岡)이며, 조선 초기의 무장이다. 1397년 왜구가 낙안에 침범하였을 때 이를 크게 물리쳤으며 남해·사천 등지의 싸움에서도 크게 이겼다. 이로써 당시 태조는 그를 전라도 수군절도사로 임명하였다. 말년에는 낙안의 백이산 기슭에 정사를 짓고 지냈다.